

2026. 7. 2 (목)

## 메타 AI 컴퓨트 외부판매 발표 해석

- 메타의 AI 컴퓨팅 외부판매 검토, 시장에는 AI 컴퓨팅 과잉 공급 시그널로 해석
- 컴퓨팅의 세대/용도별 재배치 단계로 봄, 최신 GPU 외부 확보 병행하기 때문
- 추후 1) 구형 GPU 중심 외부 임대인지, 2) CapEx 상향 지속 여부 확인 필요
- 한국시장에서도 AI 인프라 랠리 종료보다는 섹터 로테이션 연장 가능성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7/1 메타가 초과 AI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 1) 메타 모델(Muse Spark 등)을 자사 인프라 위에서 API처럼 제공하는 방식과 2) 네오클라우드처럼 AI 컴퓨팅 capacity 자체를 임대하는 방식

이 뉴스는 빅테크 중 약한 연결고리로 지적되어온 메타의 AI 컴퓨트 공급과잉 가능성을 자극하는 부정적 뉴스로 해석. 이에 따라 메타는 +8.8% 상승했으나 코어 위브, 네비우스 등 네오클라우드와 메모리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주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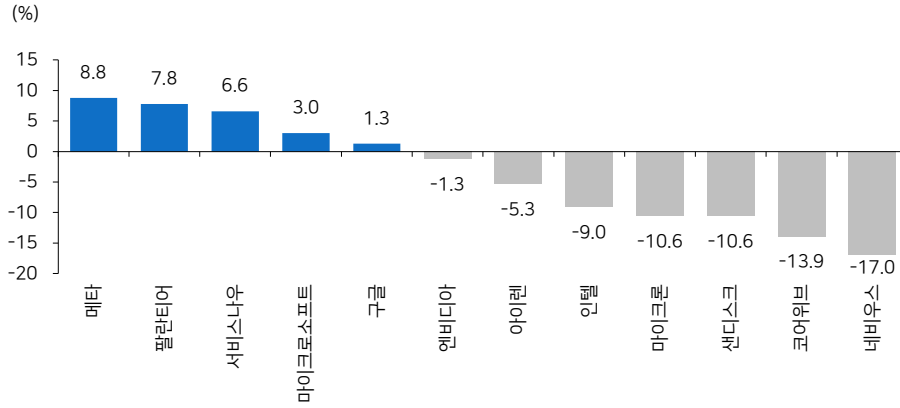
다만 이 외부 판매 검토가 곧바로 투자 축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메타가 외부 AI 컴퓨팅 용량 확보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 6/18 메타는 Crusoe로부터 약 1.6GW 규모의 컴퓨팅 용량 확보. 같은 날 구글이 메타의 Gemini 사용량을 제한해 일부 내부 AI 작업을 지연시켰다는 보도. 메타가 컴퓨트가 남아서 투자를 중단해야하는 국면이라면, 외부 컴퓨트 확보가 병행될 이유가 약함

따라서 AI 컴퓨트 수요가 꺾였다는 신호라기보다, 컴퓨트 자산이 세대별, 용도별로 재배치되는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최신 GB300, Rubin급 GPU는 프론티어 모델 학습과 고성능 추론 수요에 계속 투입되고, Hopper 등 이전 세대 GPU는 외부 임대 용도로 수익화될 가능성이 높음. 메타는 작년 9월 이후 올해까지 최신 GPU 컴퓨팅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네오클라우드들과 GB300, Vera Rubin의 컴퓨팅 임대계약을 지속적으로 맺어 왔음

이 논리가 맞으려면 1) 추후 메타가 실제로 Hopper 등 구형 GPU를 외부판매 대상으로 특정했는지 확인되어야 함. 2) 월말 실적발표에서 CapEx 가이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지, AI 컴퓨팅 외부판매에 대한 톤 확인이 핵심 관전 포인트

미국도 그동안 쏟았던 반도체 낙폭이 컸던 반면, 나머지 주식의 반등. 한국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조정을 반도체 사이클 종료로 해석하기보다 AI 반도체 관련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는 이벤트 전까지 섹터 로테이션의 연장 가능성 고려

그림1 메타 SI 컴퓨트 외부판매 관련 7/1 미국 주요 기업 일간 주가 반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